

기본급 141,300원 인상!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저하 금지!
노조활동시간 보장! 발암물질 및 CMR독성물질 사용금지!



지부교섭 속보

8호

2025.06.19(목)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권현구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9차 지부교섭_ 사측 제시안 없음 / 교섭 결렬]

지부교섭 결렬!

이번에도 임금인상안 없었다



아무 진전없이 결렬!

지부교섭이 결국 결렬됐다. 6월 19일(목) 9차 교섭에서 사측은 아무 제시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임금 인상 포함해서 일괄안 제출하라는 요구는 가볍게 무시 당했다. 노측 교섭위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임금도 지부교섭에서 다룬다!

임금인상은 엄연히 지부교섭 요구안이다. 최근 몇 년간 편의를 위해 지회별로 논의하도록 열어줬지만, 올해는 지부교섭에서 임금인상 논의한다. 이미 몇 차례 지부의 의지를 사측에 명확히 전달했지만, 사측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되는 듯 하다.

보통은 교섭 결렬, 조정신청, 7월 총파업 투쟁이 진행되고 난 뒤, 교섭이 재개되면 한두차례 안에 타결

하기 위해 교섭에 박차를 가한다. 그러나 올해는 교섭 결렬 때까지 임금인상안이 한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속도라면 7월 16일 총파업 이후 교섭이 재개되더라도 휴가 전 타결은 어렵다.

7월 16일 총파업으로 간다!

금속노조는 전체 사업장 일괄 조정신청과 쟁의 찬반투표를 거쳐 7월 16일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 2025년 임단투 승리와 노조법 전면개정 등의 대정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투쟁 열기도 한층 더 뜨거워진다.

<향후 일정>

- * 7/4(금) 일괄 조정신청
- * 7/7(월)~10(목) 쟁의 찬반투표
- * 7/16(수) 총파업

9차 교섭 속기록

앞으로 한달 공백기 동안 제대로 준비해라

사 : 날이 무척 덥다. 멀리 오두달간 9차까지 교섭하고 있다. 노사 모두가 조금씩 상대방 고려하는 마음으로 교섭이 잘 진행되면 좋겠다.

노 : 오늘 교섭위원들 세종 컨티넨탈 사업장에서 결의대회하고 왔다. 기후위기 때문인지 날이 많이 더워지고 외부 활동하기 힘들어졌다. 반복적으로 진전된 제시안 요구했는데 한번도 검토할만한 제시안이 안나왔다. 중앙교섭도 화요일에 결렬했다. 오늘 제시안 보고 이후 방향 결정짓는 날이 될 것 같다. 제시안 있으면 받아보겠다.

〈사측 제시안 없음〉

사 : 오늘 제시안 준비 못했다. 연이어 두차례 제출했는데 2차 제시안 제출할 때 많은 시간 노력해서 마련했다. 3차 제시안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임금이 가장 관건이라고 본다. 올해는 지부에서 임금 다루다보니 사측 입장에서는 여의치 않을 것 같고 임금 외 다른 내용도 고심해서 좋은 안을 제시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노 : 임금인상안을 안 내겠다는건가?

사 : 그건 아니다.

노 : 몇 년간 편의적으로 임금교섭을 일정 시기에 지회별로 내렸다. 올해 지부교섭에서 임금 다룬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각 회사별 임금을 집단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 지회별로 각기 다른 공간에서 논의하게 한다. 지금 사측이 말한 것은 부담스러워서 임금 내기 어렵다는 말로 들린다.

사 : 오늘 교섭 오기 전에 과거에 지부에서 임금 논의할 때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사측 교섭위원에게 설명했다. 지금 현재 각 사별로 임금 논의되는 진행상황 볼 때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다른 뜻은 아니다.

노 : 지난 교섭에서 임금이 나오지 않으면 나머지 제시안도 검토 안하겠다고 했다.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 제시안 제출 안하면 교섭이 결렬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차기 교섭이 7월 말이다. 보통은 조정 끝나고 파업 돌입하고 교섭이 재개되면 1~2차례 정도에 마무리 됐는데 지금 사측 얘기 종합하면 그때도 타결이 어렵다. 사실상 휴가전 타결이 어렵다. 올해 교섭 길어진다. 해가 거듭할 수록 노사관계가 편해지고 노하우가 쌓여서 교섭이 쉽게 진전되는 분위기여야 하는데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면 집단적 노사관계가 척박해지고 각박해진다. 걱정이다. 이렇게 결렬되고 나중에 만 날 때 제대로 될지 걱정이다. 오늘 교섭 결렬을 예상하셨는지 사측 위원 3명이나 위임장 내고 불참했다. 코스모링크는 해외출장이라고 며칠전에 얘기해서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보쉬도 해외출장이고 한온은 또 내부 사정으로 불참했다. 만약 결렬이 아니라 교섭 진행했으면 나머지 교섭위원들이 내용 결정할 수 있나? 한번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3개 사업장이 한꺼번에 빠지면 어떻게 진행하나? 오늘 결렬 선언한다. 조정 기간 동안 거의 한달 공백기가 생긴다. 잘 논의해서 임금 포함한 일괄제시안 요청한다.